

향후 국내 산업보건분야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현장에서 산업위생 30년을 경험한 자의 시각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개정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다.
서비스업, 농업, 수산업 등 다양한 종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19년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나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3월에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점에서 향후 국내 산업보건분야에서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32분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미루어져 왔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개정한 이후 30여 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현장에서 산업위생 30년을 경험한 자의 시각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개정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산업보건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야의 노동자들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만 관심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과거 산업보건서비스가 접근하지 않거나

제언

그동안
산업보건분야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용역 사업이 활성화된
유해인자만을
많이 다루어 왔다.

미흡했던 서비스업, 농업, 수산업 등 다양한 종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산업현장을 가장 많이 접하는 작업환경측정 등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향후 한국 산업보건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발표 세션을 준비하여 우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4일 한국산업보건학회에서는 「간과되어온 위험 - 새로운 인식과 관리(Emerging Occupational Hazards - Recognition and Control)」라는 주제로 제50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산업보건분야에서는, 작업환경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나 인간공학적 인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용역 사업이 활성화된 유해인자만을 많이 다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해인자 중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전자파, 라돈 그리고 빛 공해와 같은 물리적 인자 등 여러 요인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습하였고 유해성도 잘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덜 가져왔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 부분도 한국산업보건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발전이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소득 대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 성장 또는 다양성에 대한 대처보다는 서비스 사업분야의 규모만 커진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국내 산업보건 모든 분야의 규모를 과거와 비교하면 거대한 몸체가 되었다. 하나의 거대한 몸체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체에 속해 있는 여러 지체가 함께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소외된 노동집단의 건강 보호와 다양한 유해인자를 다루는 분야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시대에 따라 사회적 이슈나 사업적 발전가능성 또는 정부 주도의 법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산업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유해요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다루어 온 작업환경 유해요인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산업보건 분야는 축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산업위생협회(AIHA)에서는 산업위생을 'Science'와 'Art'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과학과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산업보건은 학문 분야이면서도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름다운 행위를 펼치는 행위예술(Art)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직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노동자 중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외된 영역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또한, 과거 선진 외국의 산업 구조 변화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특성화된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예측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유해요인에 대한 학문적 발전이 필요한지는, 산업보건분야의 구성원 전체가 자주 논의하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기존 산업보건 사업에서 다루어 왔던 분야만 다룬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유해인자 관리에 대한 학문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길을 걸기 시작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길을 잡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산업보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면, 인식의 변화 없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다루거나 산업보건 구성원 전체의 소통 없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단편적인 해결은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적절한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과거 국내 산업보건에서 이루어진 많은 성과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단점을 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장점을 보는 시각은 부족하였다. 당연히 단점은 보완해야 하지만 장점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발전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발전을, 속도로 볼 것인가 부작용이 적은 합리성으로 볼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국내 산업보건은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접한다.

따라서, 향후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의 다양한 변화는 발전의 시작이고, 산업보건에 관여하는 모든 분야의 소통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산업보건은
학문 분야이면서도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름다운
행위를 펼치는
행위예술(Art)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